

19890412 주일 상황을 잘 판단하여 일하라 대하35:18-27

남자는 무드에 약하다

12)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잠깐 나옵니다. 다윗이 범죄하여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를 취했습니다. 왕궁에서 지붕위를 걷다가 쳐다보니까 - 위에서 쳐다보니까 목욕탕 뚜껑 없는 집은 다 보이지요.- 여자가 한참 폼 재고(form) 있었습니다. 남편은 없는데 벗고서 ‘언제나 이렇게 벗고서 남편에게 대드나?’하고 (웃음) 왜 웃어? 이 설교라는 것은 말이에요. 영감을 걸어 놓으면 그대로 투시하는 겁니다. 웃으면 영감 없어져요. (웃음) 영감을 걸어놓고 사차원 세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설교 끝난 다음에 그러합니다.

“야, 나 오늘 무슨 설교 했냐? 아까 웃을 때는 왜 웃었냐?”

물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웃은 대목에다 체크(ckeck) 해 봤거든. 그러니까 그게 우습다는 거예요. “야! 내가 생각해도 참 기차게 말씀을 표현했구나.” 그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선생님께서 성경 구절 적어온 종이를 보이시며) 이게 원고가 아닙니다. 몇장 몇절만 써 놓은 거지.

그렇게 하고 있는 판국이었습니다. 우리아는 군대장관으로 전쟁터에 가 있는데, 그 여자는 자기 나름대로 폼(from)을 잡고 있는데, 다윗이 먼저 그것을 보았습니다. 남자는 말이에요, 무드(mood)에 약한 것 같아요. 무드(mood)! (웃음) 벗으면 약해요. 무드(mood)에 약합니다. 왜 약하냐? 내가 이걸 이야기 해줄게요. 우물쭈물 했다가는 애들이 크질 않습니다.

한번은 내가 목욕탕에 갔습니다. 내가 목욕탕에 가면 남자 애들(MS들)이 꼭 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상하게 전부 다 고추가 뿔뿔해요. (웃음) ‘이상하다. 왜 이렇게 비상이 걸렸냐? 민방위 경보도 안 났는데...’가만 있었지요. 보니까.... 내가 얼마나 눈치가 빠르니 압니까? 왜인고 하니 거진 다 영감을 걸어 놓고 돌아다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던 것을 목욕탕에서 주실 지도 모르니까, 어디서 주실지 모릅니다. 찜통에서 주실지도 모릅니다. 찜통에 들어가서 내가 5분 더 있다가 나오는 것은 혹시 내가 기도한 것이 거기서 말씀으로 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같지 않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기도해 놓고 ‘언제 선생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언제 전화올런가...’ 기다리듯이 나도 하늘 앞에 기도해 놓고 그보다 10배, 20배, 기도합니다. 나 혼자의 일이 아니고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한번 잘못 판단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하고 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답이 대개, 밤중에 “여봐라.

여봐라...”하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꼭 보면, 아무 것도 아닌 생활 가운데 부딪치는데, 생활을 뿔같이 하면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어디서 답이 올지 모르니까 항상 마음이 긴장된 상태로 환경을 살피고 돌아다니십시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상황판단 잘 하라고, 깨달은 것 딱 하나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 때 내가 상황판단을 잘 했지요. 보니까 한 9살쯤 된 계집아이가 거기서 목욕하고 있더라고. 나는 목욕하느라고 몰랐는데, 그 아이가 옷벗고 방금 들어와서 목욕하고 있으니까 모두들 그걸 봤던가 봅니다. 얼마나 날카롭게 봤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지요. ‘아이고, 참, 남자들은 정말 무드(mood)에 약하구나? 그건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나 막지, 못 막습니다. 그래서 그 때,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남자의 수치입니다...”’ 그 여자아이를 11살 된 오빠가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자기 엄마가 일찍 죽고 아빠랑 지내는데, 오빠가 가는 데마다 자꾸 따라 다녀서 데리고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기도를 하고 나서 응답 받았나 안받았나 꼭 봅니다. 기도를 했더니만 남자들이 전부 한증탕으로 갔습니다. 거기 들어갔다 나오니까 전부 조용해졌지요. (웃음) 뜨거운데 들어갔다 나오니까 무드(mood)고 뭐고 상관 없어요. 그 때, 내가 뭘 깨달았는고 하니, 이게 중요합니다.

“야! 나는 이 지구촌의 성결(聖潔)한 한 여자이다. 어린 아이가 아니고 한참 큰 처녀다. - 섭리사는 처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전부다 하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그 중에 대표신부가 아닙니까? -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만 뛰어 돌아다니면 생명들을 다 세워 놓을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문제 없다. 나 하나면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날이, 다시 재확인 받은 날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뭘 봐도 항상 섭리사를 생각합니다. 나를 통해서 항상 섭리사의 입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큰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얻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이거, 혼자 해가지고 될까? 애들을 전부 때려 부리면서 밀어 부쳐야 되는데....’ 맨날 그랬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딱 알았습니다. ‘혼자 충분하다. 애들은 내 뒤를 밀어주면 혼자서 충분하다.’ 그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는고 하니, ‘안되겠다. 나와 같이 어느 정도급은 일단 뽑아내서 섭리를 밀어 부쳐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작전을 달리해서

“학교 잘리지 말고 학교 다녀라.”

“직장 잘리지 말고 직장 다녀라.”

그런 작전을 세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대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이런 깨달은 이야기는 안합니다. 깨달은 것 때문에 재미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진대 우리가 어떤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생각하고, 알아야 합니다.

19891008 주일 섬리의 빛 마5:13-16

그리고 남자들도 그래. 이제 남자도 썩어 뻔어야지. 남자들! 남자들은 좀 담대한 데가 있어야 합니다. 쩌쩌하게 여자들 걸어가는데 뒤통무니 슬슬 따라다니고 말이여, 그건 정말 맛이 더럽게 없는 남자들입니다. 담대해서 여자들 앞으로 척척 나가고 여자를 뒤따라오게 만들어야지 여자들 다 가는데 뒤에서 「한번 가볼까?」 정말 그것은 맛이 없는 남자들입니다. 잡지마! 아예 잡으면 큰일 납니다.

또 하나는 원고하니 남자들은 음침하면 안됩니다. 남자들 속에는 구렁이가 많이 들어있어. 그런 남자들은 큰일 납니다. 그런 남자들 잡지마! 맛이 없어서 한점도 못먹고 버려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수없게 이런 것이 걸렸나...」 하고 천주의 하나님을 욕하지 말라고.

남자들은 사랑심이 풍부해야 합니다. 정열적인 감각이 풍부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무뚝뚝하면 안되고 또 무식하면 안됩니다. 과격하면 안됩니다. 혈기방자한 남자들은 맛탱이가 더럽게 없다고 여자들은 그런 남자들을 잡지마! 잡았다간 여러분들이 수고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정말 맛있는 남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맛있는 남자들이 어디 그리 있겠습니까마는 ...(웃음) 대개 여기 있는 남자들은 적어도 ... 욕심은 아니지만 이 여자들은 나와같은 성격의 소유자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디가서 뛰면 꼭 뒤통에서 왔다갔다 하지말고 그냥 들어가서 막 뛰고 달리고 같이 움직이고 이런 것이 좋아요.

그리고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그걸 가지고 하루종일 케케 묵어대고 묵은 자물쇠, 썩은 자물쇠로 잠귀놓듯 잠귀놓지 마십시오. 탁탁 풀어버리고 딱 깨우치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고 그래야지 그것을 그냥 꾸쭈주하고 꼼처럼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런 남자들 맛탱이가 더럽게 없어요. 오전에 전쟁했어도 오후에는 다시 풀어버리고 또 아까까지는 그렇게 했어도 지금시간에는 진수성찬 벌이고 대화하고 그래야 되는데 꿈하고 있는 남자들, 이것은 역시 맛탱이가 없는 남자들입니다. 이걸 알도록 하십시오.

남자들이 어디가서 짜게 놀지마! 돈쓰는데 짜게놀면 정말 맛탱이가 없어요. 여자들이 돈 낼때까지 기다리고 눈치나 슬슬보고, 왜그래?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지. (웃음) 그것도 여자들 위신 꺾으려고 포켓 (pocket) 뽀시락뽀시락 거리고 . 그게 좋지, 돈이여? (웃음) 좋이에요. 좋아! 휴지예요. 휴지!

사람은 맛살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믿음직스러워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덩치값, 고기값 하라고. 뼈다귀값하고! 남자들은 뼈다귀가 강하니까 강하게 놀지 못하면 안됩니다. 또 풍부하게 쓸줄 알아야 됩니다. 남자들이 쫄딱 쫄딱하면 안됩니다. 어떤 남자들 보면 여자들 보다 손이 더 작아요. 남자들은 도둑놈 손 같이 손이 커야 됩니다. 펍 펍 내놓고 펍 펍 벌어들이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수수작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남자들은 맛이 있으니까 잡아 먹어!

남자들도 그래요. 팬날 입는 옷만 입고 돌아 다니고, 남자들 의상이 단순하다고. 그러나 돌아 다녀보면 다양한 의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상으로 확 확 바뀌 입어 버릇하고 그래요. 집에서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아니 모델들이나 그렇게 입고 텔레비전(television)에 나오는 사람만 그렇게 입는게 아니에요. 나도 좀 여러 가지로 변경시키고 싶어요.” 그러면서 의상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바뀌 입으라고. 나는 집에서 오전 중에 옷을 4벌씩, 5벌씩 바뀌 입을 때가 많습니다. [뭐 하느라고 그렇게 바뀌 입습니까?] [아, 그렇지. 아침 조깅할 때 벌써 두벌씩 막 바뀌입잖아. 이놈 입었다 저놈 입었다 앞으로 너댓번 바뀌 입으려고 그래요.] (웃음) 그래야 사람이 질리지를 않습니다. 안 질리고 다시 보고 그래요. 다른 옷을 입을 때 마다 다른 품 (form)이 나오고, 다른 성격이 나오고, 다른 관(觀)이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옷 입는 대로 성격이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썩썩하게 군인 같은 옷을 입으면 자꾸 썩썩하게 행동하고 싶고 점잖은 옷을 입으면 점잖게 행동하고 싶습니다. 나야 뭐, 여러 가지가 안 통하지요. 아무리 점잖은 옷을 입어도 까짓거 까불라면 하루 종일 까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대폭적으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보라고. 주일 날에도 보면 박쥐같이 새까만 가운 입지 않고 그냥 옷을 입고 착착착 하니까 삼삼하니 좋잖아. 괜히 재판장같이 나와서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런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자꾸 경건해 지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나 양복 입고 나와서 그냥 순수하게 하니까 모든

것이 다 말쑥에 줄줄줄, 명주 실꾸리에서 명주실이 끌려 나오듯이, 삼베 자루에서 오이가 튀어 나오듯이, 개방구가 흘러 나오듯이 잘 나오잖아요. (웃음) 맛있게 말쑥이 나오고. 그렇게 의상이 주는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남자들! 그렇지 않겠어요? 목욕탕에 가보면 팬스(panty)같은 것도 아주 야하게 입더라고. 더러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 팬스(panty)를 들여다 보고 한참 쳐다 봅니다. “야! 너무 너무.... 어떻게 그렇게 알긋은 것을 사다줬냐?” (웃음) 성격이 달라지면 여러 가지로 달라집니다. 남자들, 옷입는 것도 그렇고 의상, 두상같은 것도 여러 가지로 멋있게 착착 빼고 돌아 다니라고. 모델부들이 시범 보여줬잖아. 머리세우고 닭벼슬같이 세우고 착 쳐다보고 있잖아. 그러나 내려와보면 모델들도 똑같은엠에스(MorningStar)입니다. 특별히 다른 것이 없다니까. 그애들은 그와같이 해달라는 거지요. 자기만 하고 다니면 미안하고 쑥스럽다니까. 모두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랄하게, 환하게 웃고, 판사람들은 안 웃는데 혼자만 웃고 있으면 미안해서 못 웃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같이 한술뜨고 같이 웃으면서 해야지. 그러므로 남자들은 의상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가져야 됩니다. 이래서 남자들이 지금부터 그런걸 고쳐나가지 않으면 절대 안됩니다. 결혼해서 여자가 「아이구, 당신 옷 좀 말이여. 우리 선생님처럼 멋있게 입어요.」 「내가 선생님이여? 신경 쓸 것 없어. 이것도 나의 철학이여. 내 철학인데.」 「선생님택에 가서 그게 좋은가 옷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요.」 「물어보면 적힐텐데 내가 왜 물어보냐? 조용하니 그냥 집에서 살려는데」 그러므로 이때 못 고치면 못고쳐요. 아예 성격을 못 고친다고. 여러분들, 그런걸 고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남자들 가만 보면 생긴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맛탱이가 없다니까. 목욕탕에 가서 죽 만져보면 남자들이 끼끌끼끌해요. 젊은애들이 내살을 만져보면서 “아, 이렇게 살이 부들부들하냐? 뭘 발랐길래.” “내가 바르기는 뭘 발라? 찬물 바르고 싹싹 문질러 댔지. 바디로션(body lotion)도 바르고. 나아가서는 각종 로션(lotion)도 바르고 다 바른단. 너희들도 앞으로 해야되지 않겠어?” 결혼 했을 때 여자들이 그럴 겁니다. [아이구,끼끄러워. 이런 맛탱이 없는 것이 걸렸지?] 그런다니까. 나는 시골에 있어봐서 압니다. 내 살이 얼마나 뻘뻘한 살인지 모릅니다. 손질해서 이렇게 부들부들한 살이 된거여.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시 방식을 좋아하는 여자들이 어디 있어? 그 고사리같은 부드러운 손을 가지고 부드러운 것을 만지고 싶지. 그런 맛탱이 없는 남자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털도 있는데로 길러서 그냥 무슨 산적같이 돌아다녀.(웃음) 손질을 해야 하지 않겠어? 나라고 털이 안나나? 나도 사람인데. 우리 가문(家門)이 뭐, 털없는 가문이 아니여.(웃음) 계속 면도칼로 문질러요. 목욕탕에 가면 면도칼 공짜로 주지요? 그거 아까우니까 쓰고 나와야지. 계속 문지르면 나중에 가서 털이 새까맣게 나온다고. 명치털이 성장되어 완전히 검은털이 되지요. 그렇게 아까우면 면도칼 하나 가지고 와서 그놈 가지고 무라도 득 득 긁고 있으면 되지 않냐? (웃음) 필요없이 그걸 쓴다니까. 남자들이 새까맣게 끼끄럽게 하고 다니다가 한 40대 되면 내앞에서 수염 기를 거여? 미끈 미끈한게 얼마나 좋다고 그래? 끼끄러운 남자들 보면 맛탱이가 없습니다. 넘 정원도 내가 가꾸어서 멋있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정원도 깨끗해야 되지 않겠어요? 준비를 해 놓고 나한테 결혼시켜 달라고 해야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모두 맛탱이 없는 남자들이 되지 않도록 해. 원숭이는 안 좋아.(웃음) 백송은 좋고. 내말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닭살도 부들부들한 어린 아이 살결로 변할 것입니다. 여자, 남자 할 것없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시키는대로 했을 때 전부 부들 부들한 살결이 되어서 화장품 2백만원, 3백만원어치 발라도 그렇게 변할 수가 없는데 변해 버렸다고. 말쑥듣고 순종할 때 그렇게 무섭습니다. 남자들, 꼭 손질을 하라고. 남자들 보면 너무 너무 곱슬었어. 섬리사에도 곱슬은 애들이 많습니다. 나도 똑같이 운동하고 태양빛 받고 그랬는데, 갔다 와서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돈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돈이 있고 하니까, 다조아에서 화장품도 막 갖다 주니까 그렇지] 하는데 천만에, 까불지마! 옆에서 내가 하는 것을 보라는 거여. 조깅 갔다 와서 뭐하나. 어떻게 목욕탕에만 갔다 오면 하얗냐? 목욕탕에 가서 뭘했냐 그거여. 오이 맛사지? 안할 때는 어땠냐? 찬물 떠다 놓고 오랫동안 담굽니다. 찬물에 담그라고 법(法)을 가르쳐 줬습니다. 빨간 쇠고기도 찬물에 담귀 놓으면 허연 해 집니다. 목욕탕에 갔다오면 이를 짹 물고 죽자 사자 찬물에다 얼굴을 계속 담굽니다. 얼마나 차갑다고 그래요. 으식으식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 이튿날에는 이상하게 얼굴이 살아 납니다. 그렇게 안 한날은 안 살아납니다. 얼굴이 익은 채로 그대로 끝납니다. 그러나 반대 방향으로 돌려 봐야 됩니다. 계속 차갑게 해서 식혀 버리는 작업을 내가 한다고, 누가 좇아 다니면서 맛사지 해 줘니까? 여자들, 목욕탕에 와서 맛사지 해 준 적이 있어? 그런 것을 자꾸 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눈치 빠른 애들은 자꾸 따라 한다고. 그러니까 20년 후에 크는 사람도 내 피부를 못 따라 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40대가 되면 피부가 왕창 늙을 거여. [아이고, 여보 당신 왜 이렇게 피부가 늙었어?]해도 할 수 없어요. 남자들은 그런 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여자들만 아름답게 하라는 것이 아니야. 남자들도 기본적인 것이라도 관리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평가 할 때 평가를 받으라고. 저 시골서 나랑 같이 있던 사람들 보세요. 나이가 나보다 20살씩 더 먹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나는 이빨 관리같은 것도 철통같이 한다고. 내 막내 동생 용석이가 치과 하잖아요?

내 이를 보더니 형은 참 깔끔하게 하고 돌아 다닌대요. 보기 드문 이랍니다. 스케일링 안해도 스케일링한 것 같다는 겁니다. 내가 관리를 많이 하지요. 왜? 두 번 없으니까. 깨끗하게 하고 돌아옵니다.

남자들은 깔끔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목욕탕에 들어 갔다 나온 사람같이 그렇게 깔끔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게으르면 안됩니다. 남자들이 더러우면 안됩니다. 정말 맛탱이 없어. 깔끔해야 합니다. [‘깔끔이’하면 하여튼 지구상에서 1등 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라는 겁니다. [1등. 1등! 2등도 싫다] 알겠습니까? 깔끔이 1등 해야 됩니다. 별들의 특성이 뭐니까? 깔끔이지 뭐. 별거 있어? 깔끔! 그 하는 대로 이름을 지어 주니까. 남자들, 집에가서 거울 놓고 입을 딱 벌려봐! 치아에 충치가 들어오는가, 그리고 치아에 이끼가 끼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두 번 세 번 벌려 보고 틈만 있으면 바늘로 쪼아 내고 일을 못하고 쪼아 낸다고. [이거 큰일 났다. 썩어 들어 온다. 내 신앙이 썩는 것이 아닌가?]하고 막 쪼어 내고 잡아 당기고 합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해서 맛있고 맛있는 남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 전체는 신부들이 아니겠어요? 하늘 신부들! 꼭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늘이나 슬슬 떨어지게 만들면 안됩니다. 무슨 비늘? 그게 해골표 비늘이 검은 양복에 떨어지고, 그것도 보통것이 아닙니다. 봉어 비늘만한 놈이 뚝뚝 떨어져서 발라당 발라당 넘어져 있어요. 하도 넓어서 밥상을 삼아도 될 정도의 비늘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굵적거리면서 교회올 때 씻지도 닦지도 않고 와! 교회가 굵적거리는 장소야? 굵다 보면 미치겠으니까 나중에 가서는 참는 겁니다. 전디다 보니까 무슨 말씀 하는 지도 몰라요.(웃음) 아침에는 목욕하고 그러고서 오는 것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목욕하고 온 사람들 손 들어봐! 나머지는 도대체 뭐야? 손내려. 목욕 안하고 온 사람 손들어봐. 빨리 손 들어봐. 어? 아까 손 안든 사람이 무지하게 많았는데 왜 안들어? 손 빨리 들어. 안들어? (웃음) 죽어도 안든대요. 아침에 목욕하고 온 사람 손 들어봐. 그 나머지는 저렇게 많다고.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왜 하나 그거여. 죽인대도 손 안들어요. 안 해 놓고 했다 소리 하겠어? 안 해 놓고 했다 소리 하면 하나님께서 불칼 가지고 지나가신다고. 썩 지나가다가 손가락 한번 건들고 가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 앞으로는 주일 날에 꼭 냉수

목욕하고 오란 말이여. 이 닦고 애인을 만나러 오는데 찌꺼분하게 하고 오면 되겠어? 냄새난다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깨끗이 하고 와도 냄새가 조금씩 풍깁니다. 0.1mm씩만 풍겨도 교회가 오염된다고. 가스(gas)찬다니까. 남자들은 깔끔해야 됩니다. 밤에 잘 때도 꼭 씻고 자고. 나도 가끔 늦을 때는 안 씻고 잔다고. 애들이 안씻고 잔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깨우면 “귀찮스러워 죽겠다. 다 필요없다. 내가 죽는데 어떻게 해?”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내가 평소에 한 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억지고 씻으러 들어 갑니다. 그러나 씻고 나면 개운하고 몸이 탁 풀린다고. 앞으로 결혼하면 관심 두는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럭저럭 하면 나중에 가서는 정말로 거지가 됩니다. 양말 벗어서 석 집어 던지고 똥똥말아서 구석 쟁이에 석 집어던지고. 여러분들 집에서는 누나들 있고 여동생들 있으니까 좀 덜하지요, 결혼해서 부인한테 그렇게 하려고 그래? 뽀스(panty)도 똥똥 말아서 석 집어 던지고... 그러면 안됩니다. 물론 하숙 생활 해 보고 자취 생활 해 본 사람은 좀 덜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자기가 그런식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곤란하지. 그런 것은 없애야 됩니다.

옷도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애리가 시커머면 안됩니다. 소매 자락이 시커머서도 안되고. 모든 것이 같은 값이면 세련되고 이상적인 것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쇠고기라도 등심, 안심, 족발... 다 맛이 다릅니다. 맛있는 고기를 달라고 하면, 맛있는 고기는 금방 다 팔려 버립니다. 안심같은 것은 금방 팔려 버린다고. 여러분들도 그런 맛있고 가치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된다 그거여.

남자들은 방을 어지러뜨리지 말고 깔끔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찌찌하게 굴어서는 안됩니다. 남자들이 짜물거르면 맛탱이 더럽게 없다고. 짜물 짜물 짜물 짜물 하면 안됩니다. 몇마디 딱 하고 끝나고, 다시금 칭찬할 것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다시금 짜물거릴 것이 있으면 몇마디 짜물거리고 나아가서는 이야기하고 그래야지,

짜물 짜물 짜물하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도 보면 어머니한테 짜물짜물하는 아버지가 계시지요? 못 봐 주겠지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학을 뗐다고. [나는 정말 맛탱이 없는 남자를 데리고 살았다. 너는 앞으로 결혼 잘해라. 차라리 안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낫다.] 흔히 어머니들이 그러합니다. 남자들 전부 그런 성격을 고치고 온전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MS들 보면 참으로 맛있는 남자 엠에스(Morning Star)들 많습니다. 개발할 때 개발이 확 되어야 합니다.

남자들은 운동도 잘해야 됩니다. 건강해서 철구가 되고 철인이 되어야 합니다. 귀신도 간단히 해치우고 지구력이 있어야 되고 끝까지 전디는 전딤성이 있어야 합니다. 남자들이 어디 가면 무서워하고 버스럭 거리기만 해도 “아이구, 무서워라. 깜짝 놀랐다.” 그러면 맛탱이가 없다고. 알겠습니까? “네 이놈, 거기 쫓겨라, 이놈아! 내가 너 거기 있을 줄 알고 그랬다. 이리 오너라, 이놈아! 오늘 저녁에 죽으려면 오고 살려면 빨리 사라져!” 그래야 애인들이 옆에 있다가 ‘야! 굉장하다’ 그러합니다. 쥐만 버스럭 거려도 “에그 무서워”하면 안됩니다.(웃음)

남자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담대성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사고(事故)가 있어도 “흠, 네 이놈 거기 쫓겨라.

이놈, 나같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감히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나?” 그래야 되요. 대담하게 해야 합니다. 남자들은 한가닥씩 해야 됩니다. “내가 보라매 공원에서 축구하던 것이 있는데 이리와 봐. 한번만 내가 차고 네가 열번 차고 하자.”해서 한 번에 차서 다 분질러 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안되어도 남자들이 힘이 있어야 여자들의 힘이 된다고. 어디가면 늘 “네가 가봐. 가보라니까. 나는 화장실 좀 다녀 올테니까 네가 좀 봐줘. 이렇게 한번 살아봐. 살살 살아봐. 너 잘 했잖아? 여우처럼. 나 지금 화장실 간다고 해.” 그러면 안된다고. 맛탕이 없는 남자들! 그거 골치 아픕니다. 방안에서 이불 뒤집어쓰고 “아이, 무서워라.” 그런 남자들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여자들이 경호해 주고 남자들이 안에 들어 앉았으면 쓰겠어? 하나님은 남자입니다. 하나님처럼 씩씩하고 담대하고 위대한 성격을 갖고 그리스도처럼 위대한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작은 한 청년이 유대 민족이 대들고 온 민족이 대들어도 “흥!”하고 비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다 가지 않았습니까? 남자들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같은 성격, 여호수아같은 성격, 아브라함같은 성격의 소유자, 다윗같은 용맹한 성격의 소유자, 엘리야같은 성격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정기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있는 남자, 멋있는남자, 쫄깃 쫄깃 맛있어서 배가 터지도록 먹는 남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남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찌찌하고 여자 꿈무니나 슬슬 따라다니고 다른 마음이나 먹고 돌아 다니는 남자들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런 남자들은 그 뒤에 천사들이 칼을 빼고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이 해치라고 해서 해치러 왔다고. 위대한 성격의 소유자인 남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사람들이 [멋있다. 정말로!]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를 소개할 때 [야, 너희들 내가 작아도 우습게 보지마 내가 큰자를 보고 있는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입생 전초할 때 보았지요? [너희들, 내가 누구인지 모르지? 어린아이 같은 애들이 뭘 아느냐? 큰자를 보고 있으니까 빨리 보도록하라. 큰자가 여기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하고 한 마디씩 딱 합니다. 그 때 부터는 놀려서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나는 몰랐지.] 그런다고.

여러분들, 그런 대담성이 있어야 됩니다. 집에서 무슨 말만 해도 짹 소리 못하면 안됩니다. 아까 1부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 [부모님들은 일찍 돌아 가신다. 젊은 애들을 보라. 이 중에서 누가 크는지 모른다. 정치가도 크고 있고, 부모님들이 못한 일을 할 위대한 사람들이 크고 있고, 부모님들이 살살 빌어 대끼는 윗사람들이 될 사람이 여기서 크기도 하고.... 부모님들은 윗사람, 관직자들 보면 살 살 빌고 무서워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큰다고. 이런 사람들이 아직 플레이(play)를 안해서 그렇지 앞으로 플레이(play)를 하게 되면 정말 멋있게 쓰인다. 그러니 이들을 관심 밖에서 보지 말고 관심 안에서 보도록 하라. 위대한 사람들이다. 녀 자식 큰 것만 생각지 말고 자기 자식 큰 것을 생각하고서 늘 크게 보고 관심 갖도록 하라. 우습게 보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지 말고 내가 존경하면서 보듯이 존경하면서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멋있고 맛있는 남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진 다 한 것 같지요? 멋있고 맛있는 남자를 여러 가지로 표현 했는데 그런 남자들이 되어야 겠습니다.

남자들은 노래도 잘 해야 됩니다. 남자가 되어서 돼지 먹따는 소리만 짹짹해 대면 정말 입맛 떨어집니다. 남자가 되어서 소리만 짹짹 해대면 정말 입맛 떨어집니다. 남자가 되어서 우렁차고 산(山)이 들먹들먹할 정도로 우렁찬 음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남자들이 깨지직 소리만 내면 안됩니다. 남자에게서 여자 음성이 나면 참 보기 싫어요. 여자들이 여자 음성 못내고 남자 음성을 내면 그것도 보기 싫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는 배짱도 좋아야 합니다. 슬슬기면 안됩니다. 배짱이 두둑해야 합니다. 뒤에서 발도 구를 줄 알아야 합니다. 팡팡거리고. 알겠습니까? 나는 옷사러가서 배짱을 탁탁 튀긴다고. [안산다!]하면 [이 옷 밖에 없다.] 합니다. [내가 만들지 왜 없냐?]하면 [아이구, 사가십시오.]하고 그 때는 설설기며 쫓아 옵니다. 남자들이 어디 가서 슬슬 기면 안됩니다. 남자는 배짱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어디 가면 군중을 휘어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기질이 있어야 합니다. 남자들은 다스리는 기질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가 되어야지! 가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슬 슬 기기만 하고 돌아 다녀보라고, 남자는 대담해야 합니다. 섭리사 남자라는 것은 적어도 대 제사장들이여! 왕같은 대 제사장들이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높은 사람들 앞에서 왜 그렇게 설설기어? 나한테 와서는 안 긴데? 나한테 와서 안 기면서, 호랑이 한테도 안 기면서, 왜 곰들한테 가서 기고 있어? 기지 말고 담대하게 한 마디 딱 하고!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도 내가 내려 올 때 박 준규 민정당 대표 의원을 탁 세워 내 명함을 주며 내일 오라고 했습니다. “바쁘지만 내일 한 번 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요새 국정 감사 중이라 굉장히 바쁩니다.” 하더라고. “나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미어지게 온다. 다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그 사람도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 그 사람은 대표 의원이라는데 나는 “내가 바로 정총재입니다. 세계청년 대학생 엠에스(Motning Star)선교회 정 총재입니다. 대표 의원 박 준규 의원이시죠?” 그 사람은 바빠서 내일 못오겠다고 해서 기억을 꼭 하고 계시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만난 위력 때문에 다른 곳에 가도 항상 담대함이 있어서 윗사람 아랫사람 다 훑어서 사자처럼 만나고 돌아 다니십시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때가 무서운 것이 없을 때입니다. 유치원생들이 사장(社長) 무서워하고 나아가서 별자리 무서워합니까? 그냥 몰아 때려서 “이리 와 봐요, 이리 와 봐. 여기 별거지 좀 잡아 줘요. 별거지!” 그러니까. “아하, 내가 군대에서는 60만명이 있어도 나한테 ‘이리와라’ 소리 안 들어 봤는데 꼬마가 이리 와서 별거지 잡아 달라구?” 그럴지라도 안잡아 줘니까? 잡아줘야지! 안 잡아주면 “에이그... 별거지 한 마리를 못잡고 찌찌하게, 아이구 저거 커 갓구 별거지 같은 인생...”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유치원생 같이 귀엽게 놀아야 합니다. “야, 너 대통령 훌륭한 사람아니?” “대통령력 훌륭하지요. 형(*놀랄 때 쓰는 표현) 훌륭하지요.” “그리고 군인들, 군인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알지?” “네, 군인들 알아요. 멋있어요. 군인들이요. 아, 멋있어요.” “군인들 중에서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다.” “형,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 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없지” “그 높은 사람을 내가 심부름 시켰으니까 내가 더 높잖아요?”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럴때는 별자리가 “야, 너 군대와라. 내가 봐줄게. 빨리 와라, 옷입구. 너 빨리 군대 지원해서 들어와라.” 그런다구! 유치원생 인데도! “군대 들어와라, 내가 봐줄게. 내가 제대하기 전에 많이 봐 볼게. 너 참 똑똑하겠다.” 하며 이런 사람들이 빨리 커서 군대에 들어오기를 원할 것입니다. 별을 달고서도 ‘이 녀석이 군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 때 유치원생 만났는데 군대를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럴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싸수가 강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그런 [끼]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앞에서는 슬슬 안 기고 땀대 가서는 슬슬 기고.... 길러면 나 한테 길것이지! 인생은 맛있게 이렇게 사는 법이 있습니다